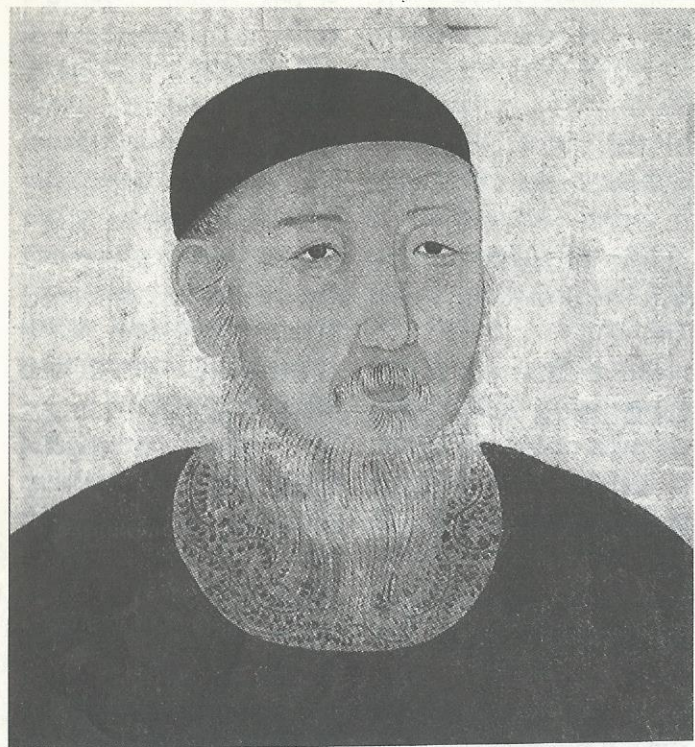


종보는 우리문중의 사적과 역사
그리고 일가분들의 소식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일가분들까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坡州廉氏宗報

發行人 廉在熙
編輯人 廉宗桓
編輯委員 仁洙, 敏燮, 在萬, 基瑒, 南燮
發行所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64 희신빌딩 403
전화 323-6223 아간 924-1020
印刷所 현대종합문화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88-4 鄭仁基



忠敬公의 遺像(傳恭愍王筆 廉悌臣像)

나 1388년 정월(禡王 14년 戊辰) 신군부세력 이성계일파가 역성혁명의 전초전으로 전제 개혁(田制改革)이란 명분아래 역대중신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일족을 살해하게 되는 바, 당시 우리 2세 선조 菊坡, 東亭, 淸江公 삼형제 분이 정부의 증추요직에 있었고 역대의 공신집안이라 제거목표의 초점이 되어 일시에 세 분은 살해당하고 가족들도 눈에 띄는대로 가두고 고문하여 죽게 되는데 다행히 화를 피했다해도 숨어 살기에 이르른다. 이 무진년의 화 이후 누가 살아남았는가도 확실치 않는 상황에서 이 초상화가 어떻게 되

인을 찾았다며 즐거히 양도해 주었고 현감공께서는 정중히 사례하고 이 초상화를 전해 받아 나주 錦江書院에 봉안하게 되었다.

3. 그 후 여러 국난을 겪으면서도 후손들은 지극한 성의로 유상을 보전하여 왔으며 1910년경에 유상은 나주에서 보성의 淸溪影堂로 옮겨져 모시게 되었다. 이때부터 염문에서는 유상의 진본을 모사해서 각지역의 사우에 모시게 되는데 청도의 구연사(龜淵祠), 함양의 반계영당(盤溪影堂), 보령의 수현사(水絃祠), 대덕의 효평사(孝坪祠), 옥천 용강사(龍江祠), 재령의 청수사(淸水

牧老有筆 勒厥金石 위彼雲臺
七分其像 于千載下 儼然起敬)

라고 하였으며 최근에 와서 文化財委員會 위원인 안휘준(安輝濬)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초상화는 건본채색(絹本彩色)의 품질이고 형식은 평정건(平頂巾)을 쓰고 녹포단령(綠袍團領) 우안7분면(右顔七分面)의 상반신 초상의 반영(半影)이며 구조는 화면 정중앙의 약간 위쪽에 머리부분을 놓았고 기타문자는 일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세로 53.7센치 가로 42.1센치의 크기로 되어 있다. 본 초상화는 공민왕이 그린 안향상(安珦像)이나 이재현상(李齊賢像)에서

시조로 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선조분들의 내력을 기록한 족보는 많은 門中에서 보존하고 있지만 시조분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를 가지고 있는 성씨는 드물것이다.

그러나 우리 坡州廉氏 門中은 中始祖되시는 忠敬公의 초상화를 보존하고 있어 자랑이다. 더우기 이 초상화는 고려말 그림의 솜씨가 뛰어난 공민왕이 직접 그려서 하사된 것이고 또 이러한 사실의 기록이 고려사나 목은문집에 수록되어 있어서 1991년 9월30일부로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보도되고 있지만 아직도 초상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일가 분들이 있을 것같아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코저 한다.

서기 1382년(禡王 8년 壬戌) 3월18日 忠敬公께서 향년 79세로 돌아가시자 王이 李穡에게 명하여 神道碑를 짓게

하였다. 이 신도비문을 보면 신돈이 패하자 왕(공민왕)은 더욱 공을 존중하여 공의 공신명(공신명)에 “輔國” 두 자를 더해주고 봉읍은 그대로 하였으며 왕은 친히 공의 초상을 그려서 하사하였다.

(曉敗, 上愈重公 加公輔國二字 封邑 依舊 親圖形賜之)라는 부분이 있고 현능(공민왕)께서 친히 그 모습을 그리니 풍부한 공훈과 성대한 덕행이 단청에 어울려 밝게 빛난다. (於穆玄陵 親圖其形 豐功盛德 煥守 丹青)라는 기록이 牧隱文集 忠敬公에 관한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에 의해 공민왕이 公의 초상을 그려 하사하였다는 과거사는 공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받은 초상화는 忠敬公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집안에 고히 보존했을 것으로 여겨지

있는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후 이 초상화가 廉門으로 돌아오게 된데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을 뿐이다.

1. 무진년의 화를 당하기 전에 公의 장자인신 국과공께서는 시세의 변천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예측하시고 일족을 모이게 한 후 어려운 시기에 처신에 각별히 조심 할 것을 말씀하신 후 하사한 초상화는 원찰인 어느 절에 보관을 의뢰하였으니 그리 알라 하셨다.

2. 그 후 서기 1531년(中宗 26년)경 9世孫 縣監公 諱宙께서 進士試에 합격하시고 丹城과 鏡城의 縣監을 역임하였을 때 지금의 경기 광주지방을 지나치다 비를 피하고자 어느 암자에 머물게 될 때 주지스님과 수인사하는 과정에서 忠敬公의 초상화를 그 절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지스님은 초상화의 주

祠), 단천 송산사(松山祠) 등에 불안하게 되었다.

서기 1900년대초 당시 대한제국 從二品 嘉義大夫 벼슬에 있던 德殷 宋秉璫이 후손 22世 錫九의 청에 의해 반계영당에 모셔진 유상을 보고 송찬(頌贊)한 글이 전하는 바,

고결한 자태는 청수하기 이를때 없고

집안에서는 훌륭한 아들이고 나라에서는

충성스런 신하였다. 천둥처럼 움직였고

산악처럼 진중하였으니 목은이 글을 지어 금석에 새겼네.

드 높은 저 공신각에 7분의 (정면이 아니고 약간 옆을 보는데) 초상이 차지하여 천년뒤에 까지 엄연히 공경한 마음 일으키게 될 것일세.

(高潔之姿 淸秀之神 在家令廟 在邦靈臣 動以雷霆 鎮之山岳)

와 같이 우안면을 묘사하고 평정선 쓴점등이 동일하고 단령(團領)깃의 당초문양만 이이체로우며 보존상태가 좋지 못해 열악하니 빛, 온도, 습도 등 서화보존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이 초상화는 22世孫 南燮, 洪燮일가의 끈질긴 노력과 정성으로 서기 1991년 9월30일부로 보물 제1097호로 지정되면서 전공민왕필 염제신상(傳恭愍王筆 廉悌臣像)의 공식명칭이 부여되고 있다.

'95. 7. 15부터 9. 10까지 서울 호암미술관에서 S.B.S 및 중앙일보사 주최로 大高麗國寶展에 이 초상화도 전시되었으며 '95. 8. 9자 중앙일보 1면에 이 초상화가 크게 소개된 바 있다. 현 소유주는 파주염씨 광주종문회로 되어 있다.

(宗桓記)

大宗會 소식

1995년도 정기총회

'95. 3. 25. 12.00에 서울 마포에 있는 대종회사무실에서 '95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1. '94년도 대종회 회계결산안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수입지부 (단위 : 원)

'94년 예산		'94년 결산
2,623,999	'93년 이월금	2,623,999
5,000,000	기금이자수익	5,000,000
500,000	종보광고수익	0
	종보간행지원	1,000,000
	임원회경비	300,000
8,123,999	계	8,923,999

※ 종보간행지원금 및 임원회경비 등 1,300,000회장 在熙 성금

지출지부

항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전 화 요 금	400,000	434,890
사 무 비	500,000	543,110
출 장 비	500,000	862,700
회 의 비	1,500,000	1,303,300
향 축 대	300,000	300,000
종 보 간 행	1,500,000	1,602,000
경 조 비	500,000	275,000
거 마 비	2,400,000	2,400,000
잡 비	400,000	399,900
예 비 비	123,999	0
계	8,123,999	8,120,900

※ 수입계 8,923,999

집행액 8,120,900
95년 이월금 803,099 } 8,923,999

2. '95년도 대종회 예산안(임원회에서 검토된 안)을 보고한 후 심의 후 확정하였다.

수입지부

'94년 이월금	803,099
'95년 기금이	5,000,000
자수익금	
('96.3월말 취득)	1,500,000
종보간행헌성금	
(광고등)	1,000,000
기타 헌성금	
계	8,303,099

※ '94년 예산대비 +199,100



— 뒤 돌아보는 6년의 세월 —

음성 평곡마을의 한 농사꾼으로 1990년 봄에 감히 大宗會長직을 맡은지 벌써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돌이켜 보면 大宗會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았으나 무한한 욕심과 한정된 능력의 갈림길에서 허덕이기만 했던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11월 지금의 우리 大宗會가 발족한 이래 15년이 지나는 동안 大同譜 편찬사업 을 비롯하여 나주 충경서원 및 사단건립, 강화사단 건립 등 선대 會長님들의 눈부신 업적들을 이어받고 어찌 그 뒤를 이을까 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한때는 지역 간의 의견차이로 화합이 되지

히 각 지역에서 거출하던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하여 지역 종친회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대종회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활발히 그리고 원활히 하기에는 기금의 이자수익금 만으로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자소득금도 다 쓰지 않고 절약하여 소득금의 일부를 기금에 가산하여 재적립하는 초긴축의 살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근 70년전인 1927년부터 우리 선조님들의 숙원사업이던 채악산 염정골에 있는 宰相公, 菊坡公, 耕隱公 산소의 정화사업을 시작하여 전 종인들의 도움으로 1993년 11월 16일에는 황폐화 되어가던 세분 산소에 봉분을 돌우고 비석, 상석 등 제 石物을 갖추는 사업을 시작으로 1994년 10월 15일에는 세 분 선조님의 묘역인 지금의 영천군 금호읍

어느 일가분들은 초기에는 대종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셨는데 지금은 잘 만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들리는 소식으로는 대종회 모임에 가기만 하면 손만 내미는 거부감이 앞선다는 분도 있고 또 어느 일가는 같은 조상님을 모시는 사우인데 어느 지방은 장엄히 치장하고 어느 지역에는 향사에 참여하기는 고사하고 향축대 한번 정도의 관심도 없으니 대종회가 이렇게 지역간의 차별을 두어서야 되겠는가 하며 항변 하였으며 또 어느분은 대종회사업이 왜 제사지내는 일이나 선조분 산소가꾸는 일에만 전념하는가 조금 현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젊은세대에게도 몸에 와 닿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타당한 의견이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

게는 격려의 전문조차 못한 결과가 되고 보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현 대종회의 사정을 아시는 분은 위와 같은 경과를 조금은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이 기회에 선거에 당선되신 분들에게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드리며 여러 여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 대종회를 대신하여 앞으로 더욱 분발하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높은 관직이나 사업에 크게 성공한 일가를 많이 가지는 타 성씨의 문중에서는 선산들도 장엄하고 화려하게 치산할 뿐만아니라 변듯한 회관, 사무실도 가지고 많은 기금을 보유하여 여러 면으로 일가분들을 돕고 즐거운 모임을 자주 하는데 우리 대종회가 지금과 같은 정도의 활동밖에 못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 개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의뢰받더라도 무리하게 부담하시라는 강요가 아니라 절약하시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사회사업을 한다거나 종교모임에서 헌금이나 시주를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물질적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 도우는 성의만은 누구에게도 고루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종회 사업이란 것도 다수 참석하신 여러분이 모여 계획하고 검토하여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결정된 대종회 사업의 대부분은 당장은 물론 후세에까지 보람이 남고 자랑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별로 한 일없이 본인은 96년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나 마 끝까지 격려해 주셔서 6년

많은 시기도 있었고 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감 때문에 활동이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일가 어른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격려해 주셨던 덕분에 대과없이 오늘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대종회 운영상의 유일한 재원이던 각 지역에서의 분담금도 잘 모여지지 않고 사무실 마저 없던 상황으로 활동이 정제되는 어려웠던 고비에 東鎬고문님께서 지금의 훌륭한 사무실을 제공해 주셔서 활동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어서 대종회기금 모금을 적극 추진하여 문중 어른들의 뜻있는 성금으로 6천만원에 이르는 기금이 조성됨으로서 이 기금의 이자소득만으로 대종회 운영경비를 충당한다는 방침으로 과감

약남리 산19의 임야 16,685평 방미터(약 5,047평)을 매수하였습니다. 총경비 약 1억원이 소요된 두 사업에 헌신해 주신 분과 격려해 주신 일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문중에는 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채약산 묘역에도 추가할 일들이 남아있고, 나주 충경서원의 보충공사를 위시해서 선조분들을 모시는 각 지역의 기울어져가는 사우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수작업을 지원하고 싶고 항구적인 대종회 사무실도 건립하여야 되며 또 불우하지만 착하고 장한 후손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하는 등 이 모두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입니까? 그러나 우리 문중의 지금 형편으로 또 얼마나 힘드는 일입니까.

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여 곧 실현하기란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실시한 6·27 4대 선거를 맞이하여 일가분들의 입후보 상황이 대종회 조직 계통으로는 전해지지 않고 일반 보도를 통해서야 겨우 알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마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반보도에서는 발표되지 않은 지방군의회의원, 구의원 등 지역선거에서는 우리 일가중 누가 출마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출마사실을 알게 된 분들에게도 격려의 전문만 전하는 수준의 일 밖에 못한 점, 가슴아프게 미련이 남으며 또 출마사실을 몰랐던 분들에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여건이 주어진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만사 그러하듯이 가꾸어야 견을 수 있는 이치 아닙니까? 우리 종친회도 전 종인이 관심과 성의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꼭 남부러운 결실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도 우리 종친회는 창립 이래 불과 15년 사이에 느리나마 이 만큼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나 생활이나 요즘같은 어려운 시절에 어느 구석에 물적,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종회 사업이란 무리하게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또 몇사람의 뜻만으로 발전하는 성질의 사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자발적이고 많은 종인이 참여하여야만 성과가 있고 빛이 나는 것

에 걸친 회장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96년 4월에는 회장직을 비롯한 大衆會 전 任員을 개선하게 되오니 여러분이 지금껏 관찰해 오신 슬기를 모아 활동적이고 보다 능력있는 분들로 임원을 선출하시어서 우리 대종회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앞에 두고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에게 어찌 보답할까 하는 마음 간직하며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고 대종회 앞날에 무궁한 발전 있을 것과 일가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大衆會長 廉 在 熙

1면 下에서 계속

지출지부

항 목	'95년 예산
전 화 요 금	400,000
사 무 비	500,000
출 장 비	500,000
회 의 비	1,500,000
향 측 대	300,000
	나주, 강화, 영천
종 보 간 행	1,500,000
경 조 비	500,000
거 마 비	2,400,000
잡 비	400,000
예 비 비	303,099
계	8,303,099

강화유적 보호관리위원회 운영사항

항 목	'94년 집행	'95년 예산
제 수 비	880,000	1,000,000
화분, 마이크, 인부등	210,000	350,000
세 금 등	80,000	150,000
현 지 조 리 비	121,000	300,000
참 예 자 점 심	1,114,920	1,500,000
사 무 통 신 비	216,610	300,000
벌 초 등	290,000	800,000
기 타 지 출	164,500	200,000
계	3,122,030	4,600,000

※ 수입금은 참여자 및 임원들의 성금으로 충당

※ '94년도 회계결산 및 예산안 승인은 '95년 2월25일의 대종회 임원회의에서 심의 통과된바 있음.

대종회 기금관리현황

('95. 3. 1)

'94년중 모금액 280만원
'94년경상비인출('95. 2. 14)
이자금에서 500만원
'95.2.14현재 잔금 59,702,535
江華 '95. 2. 14현재 4,329,182
永川 '95. 2. 14현재 13,257,074
※ 이상 금액은 소액경비현금의 약간을 제외하고 한국투자신탁에 예금중임
3. 총회 기타토의 및 결정사항
가. 영천산소 정화사업에서 여러모로 수고해 준 두분에게 공로패 및 부상

(시계 1좌)이 수여 되었다. 東鎬 秀東

나. 회장의 제의로 이사 敏燮을 부회장겸 도유사로 상임이사 宗桓을 부회장 겸무로 任員직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다. 任員을 보선하였다.

吉榮 圭昌 泰模
이상 3명을 대종회 이사로 임명

라. 광주종문회에서 총경서원 보충사업안이 제시되어 토의끝에 공사내용등을 재조정키로 하였다.

— 壬辰倭亂과 廉門의 勇將 —

서기 1592년(宣祖 25년 壬辰) 4월에 약 16만의 大軍으로 釜山에 上陸한 倭賊은 당시 당파싸움으로 사회가 부패 분열되어 결속된 힘이 없는 아군을 각지에서 물리치고 2개월만에 서울을 지나 평양까지 침입하기에 이르른다.

이후 약 7년간 국토의 전역을 유린당하게 되는 국가 존망의 大亂에 처하여 우리 坡州廉門의 선조분들은 어떠한 삶을 영위하셨을까?

고려말에 이성계의 신군부 세력에 의해 멸문 되다시피하는 화를 당하고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節義를 지키려고 李朝에 와서는 나라의 권부에 출사하지는 않았지만 나

라가 위태로운 大亂에 직면한 廉門의 선조분들은 도망다니기에 여념이 없던 벼슬아치들과는 달리 향토를 지켜 목숨을 던져가며 왜적과 싸워 공을 세운 분이 한 두분이 아니었다.

그 중에는 공적이 알려져 공신록에 오르고 또는 높은 벼슬에 추증된 분도 많지만 공적이 숨겨져서 알려지지 않아 후세에까지 그 행적이 전해지지 못한 경우 또한 많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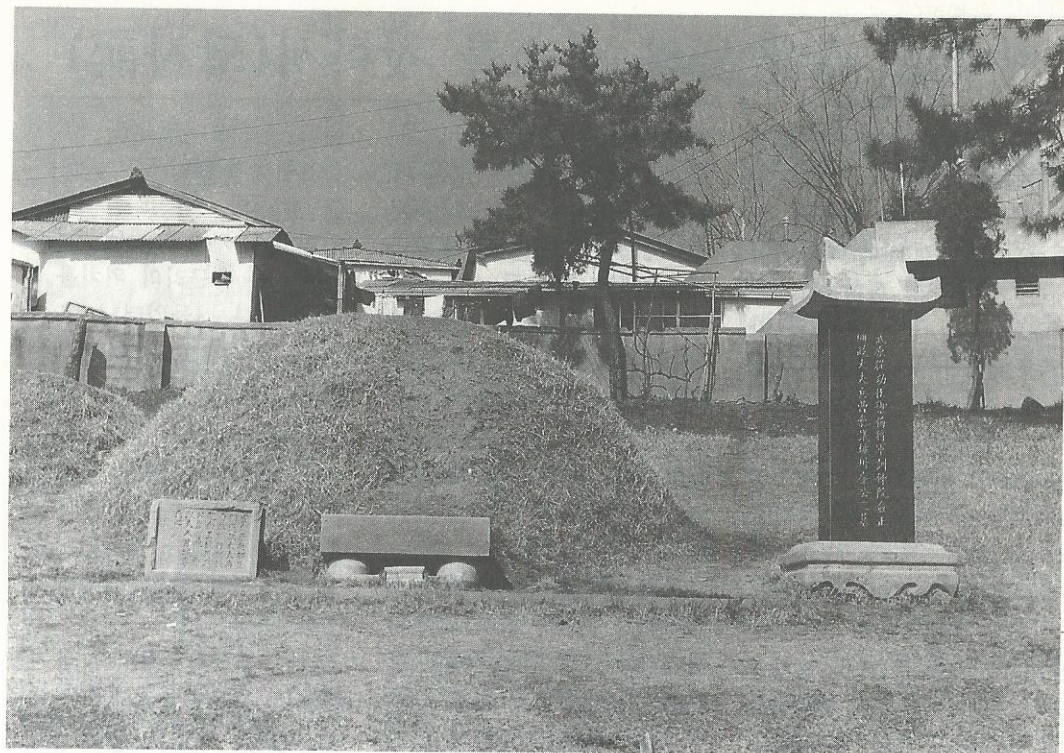
오늘은 먼저 연상장군의 활약을 살피기로 한다.

參議公 彦祥將軍

忠敬公 中始祖 11대손이신 諱 彦祥參議公은 서기 1552년(嘉靖 31년 明宗 7년 壬子)에 金城에서 考 通德郎 諱 白連妣 恭人 慶州金氏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뛰어난 자태에 어려서부터

俊), 송여종(宋汝宗)과 합勢하여 영·호남을 왕래하면서 倭賊을 공격하여 공을 세웠고 海戰에도 출전하여 현저한 공을 세워 李忠武公의 장계에 의해 訓練院僉正(중 4品)의 벼슬에 오르면서 신임을 얻어 충무공막하에서 걸출한 위치에 이르렀다. 丁酉再亂이 일어나기 조금전에 忠武公을 제거



가족을 돌보고 宗祀를 돌보라며 억지로 고향으로 보내고 草溪陣으로 와서 왜적과 싸워서 얻은 수급을 黃從事 汝一에게 교부하니 도원수는 공로를 가상하고 宜寧과 咸安의 적을 요격할 것을 명받는다. 적은 군사로서 적과 싸워 유격전으로 환난을 막으니 昌原에 주둔한 적이 준동을 못하였다. 이해 6월경 右兵使 金應

청명한 가을밤에 울적한 마음에 젖어 종사 黃石을 불러 水軍의 소식과 고향의 사정 등을 탐문하러 보내고 착잡한 심정을 표명한 시구로

“남녘을 바라보니 고향집멀고

북쪽을 바라보니 임금님 환도가 더디구나

달무리 서고 하늘은 고요한데

品)에 이르고 1861년(咸豐 11년 哲宗 12년 辛酉) 11월에는 通政大夫 어모장군(禦侮將軍) 兵曹參議(정3品)로 추증된다.

공이 돌아가신 후 시신을 찾지 못한 후손들은 公의 의대로서 固城郡 南面 蛇法山下(지금의 統營市 貞梁洞)에 장사지냈다.

公의 配位 淑夫人 月城李氏와의 사이에서 응구(應樞) 응

효성이 지극하였고 성장함에 따라 나라에 충성하기를 맹서하고 智勇을 겸전하여 늘 兵書를 가까이 두고 정진하였으며 武藝에도 남다른 힘과 기교를 간직하고 연마에 쉬는 일이 없었다.

일찍이 明宗때에 武科에 급제하여 司僕主簿(6品) 직을 받았으나 뜻하는 바 있어 출사치 않고 順天府 松亭 남쪽에 은거하고 있었다. 이러던 중 壬辰亂이 일어나고 倭賊이 전 국토를 유린하게 될 때 全羅左水使로 있던 李忠武公의 격서를 읽고 분발하여 막하에 종군하여 유격장의 직분으로 활약을 시작한다.

동향인 의병 정사준(鄭思

하려는 倭軍 첩자의 계획과 국내 당파간의 알력으로 누명을 쓰고 충무공이 의금부에 투옥됨에 따라公道 시정 처사에 연민을 느끼고 직분을 사임하고 귀향하고 만다. 비록 당파간의 싸움이나 벼슬에 탐욕이 많은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公의 위국충절의 철리에는 변함이 있었겠는가. 기여코 다시 분개하여 아들 參議公 응탁(應倬)과 더불어 의병 수백명을 모아 都元帥 권율(權慄) 장군 막하로 출사한다. 權 장군으로부터 공사를 분급받고 岳陽에 이르러 昆陽에 있는 倭賊과 조우하여 분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이후 함께 종군한 아들은

瑞가 제보하기를 부산과 서생에 있던 적이 昌原의 적과 합세하여 慶州로 이동한다는 말을 듣고 中軍將 李德弼과 더불어 적을 공격하여 淸道 大坪 방면까지 진격할 때는 참획한 적의 수급이 1천여가 넘었다. 이때 龍仁, 竹山에 있던 적대군이 원정은 明나라 군사에게 쫓겨 남하한다는 기미가 있자 防禦使 李沃來와 더불어 秋風嶺에 진주하여 험한지세를 이용하여 유격전으로 많은 전과를 얻었다. 이때 우리 군세가 淸安에 모인다 함을 듣고 송진길(宋震吉) 노언경(盧彦卿)과 더불어 달려가서 山城에 머물게 되는데 이 때가 9월이었다.

고신은 더욱 임금님 그리운 밤일세” 라는 구절이 있다. 얼마후 山城에서 남쪽으로 패퇴하는 적대군의 습격을 받게된다. 궁한 쥐가 고양이를 물려든다는 속담과 같이 도망가는 적의 공세는 격렬했고 군세가 수천이 넘는 대군이었다. 이를 맞아 公은 휘하 장졸을 독전하고 진두에서 용감히 싸웠다. 싸움은 새벽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싸움에서 公은 적의 유탄에 맞고 서거하시니 享年 46세가 되시는 이때가 서기 1597년 丁酉 9월 23일이었다. 그후 公에게는 宣武原從二等功臣의 칭호와 서기 1778년(正祖 2년) 通訓大夫 軍資監正(종3

탁(應倬 參議公) 형제를 두었는바 公이 돌아가신 후 두 형제는 어머님을 모시고 보성에서 固城으로 옮겨와 살았다.

후손들도 公의 충성심과 지극한 효성을 본받아 公의 4代孫 德升과 아들 國范 樂范, 極范 碩范 宅范의 5형제와 國范의 아들 協權으로 이은 子孫의 孝行으로 哲宗2년 辛亥에 三世7孝로 命旌되었고 또 公의 5代孫 公范 역시 지극한 孝行으로 憲宗 14년 戊申에 命旌되는 등 빛나는 家系가 이어지고 1992년 10월 21일에는 公의 묘역이 경상남도 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되었다.

秀東(大宗會 理事)

기타단신

지출

당일 현재 지출총액

1. 1995. 4. 16. 12.00에 강화 양세조사단의 향사가 아침에	4,178,430
는 비가 내렸는데도(곧 개	잔액 2,968,792
있음) 약 300여명이 참여하	2. 선조산소성문로 바뀐 봄나
였다.	들이
향사후 회계결산상황	1995. 5. 8. 경남 거창군 남
수입	상면 거주 종인 약 150명이
이월금 1,447,222	봄나드리행사 일정을 변경
(기금 400만 제외)	하여 선조분산소의 성묘을
현성금 4,700,000	하기로 하고 영천재상공,
제수 1,000,000	국타공, 경은공 산소의 성
(회장 재회 제공)	묘을 하였다.
계 7,147,222	3. 부산화수회 임원개선
	부산화수회에서는 1995년

5월 28일부로 동래 금강공원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전임회장 東鎮氏등 任員을 개선하고 50대 후반의 새 임원으로 새로운 활동면모를 보일 것이라며 의욕이대

단했다.

會 長 23世 洪太

051-552-8363

부회장 21世 正水

23世 文慶, 丁模

24世 賢植

총 무 24世 尙述

감 사 23世 永豪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琦燮, 且祚, 昌勳, 鳳哲, 德洙, 東鎮, 英鎮, 秀東, 聖壽氏는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4. 大宗會고문이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던 永夏氏(향년 78세)가 '95년 6월14일 15시에 삼성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5. 6.27 지방선거

'95년 6월27일에 실시한 4대 지방선거에서 뜻을 이룬 坡州廉門의 일가분들은 다 음과 같다.

東俊 21世 54세

경기 성남시 시의원

判炯 22世 57세 전남 도의원

永燮 22世 56세

전남 보성군 군의원

幸祚 23世 44세

전남 나주시 시의원

相天 23世 43세

경기 수원시 시의원

五溶 24世 39세

대구 달서구 구의원

根植 26世 58세

경남 마산시 시의원

中始祖 忠敬公의 산소를 찾아서(답사記)

'95년 5월12일이면立夏가 지났는데도 아침 5시에는 얇은 내복을 입어야 할만치 쌀쌀했다. 전날밤 잘때 내일 4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몇번 눈을 떴다가 자고는 했지만 中始祖님의 산소 위치를 탐방 확인한다는 생각에서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일어나서 바로 만나기로 한 약소장소인 논현동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모두 大父行列이신 昌勳, 相守, 敏燮 세 분을 모시고 통일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이른 아침이라 차량소통이 잘되는 통일로 주위는 싱그러운 녹음이 시야에 가득차고 아카시아 등 꽃 향기가 미풍파라 흐르는 속을 달리면서 생각은 과거사에 잠겼다. 어릴 적에 조부님께서 어린 내가 무엇을 알거라고 忠敬公 선조님의 산소가 장단 고량포 건너 있다는 것과 신도비를 다시 세울때의 일화등을 말씀해 주시던 기억이 60년의 해가 지난 지금 되살아나고 남

穴洞(항동), 恒洞(항동), “항골”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神道碑 옆에 山亭이 있는데 339번지라고 되어 있다. 형국은 甲申譜에는 江南面 大谷之原에 庚穴龍 乾亥入首 子坐 午向, 申得水, 長破이고 坤位이신 辰韓國夫人 安東權氏는 壬坎入首, 子坐 午向, 坤得水 己破로 左麓에 있는데, 雙乳穴(쌍유혈)이라 부른다고 “여지승람”에 실려있다.

忠敬公께서 1382년 壬戌 3월 18日 丁卯에 향년 79세로 돌아가신후 韓山伯 李穡이 奉敎撰한 神道碑文에 보면 같은 달 20日 己巳日에 당시의 지명 臨江縣 大谷之原에 장사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다.

神道碑는 1899년 己亥 10월에 代孫 在業, 章洙, 錫九 등이 정력을 다하여 오랜 세월이 돌이 이그러지고 글씨가 몽개져서 읽어 볼 수 없는 碑文을, 당시의 大司憲 宋秉璿이 追記를 하고 宋道淳이 전각하여 신도비를 다시 세웠고(신도비문 탁본 필자 보관) 忠敬公의

의 현위치를 물었던 것인데 군청관계자들의 말은 관내에는 江南面 禹勤里가 없다는 답이었다. 가지고 갔던 지도를 보이면서 우근리의 위치를 지적하며 다시 물었더니 그 지점은 현 휴전선 이북의 땅이라고 하였다.

일행은 발길을 돌려 지도상으로 보아 우근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장남면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장남면 사무소는 휴전선 남방 한계선 가까운 곳인 고량포 근처에 있는데 출입제한구역이라 갈 수 없다는 군인검문소에서 사정을 말하고 주민증 등을 맡기고야 사미천교를 건너서 장남면 사무소에 들러 부면장인 김석기씨를 만나 우근리에 관한 사항등을 물었더니 근거가 될만한 자료는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쪽으로 가는 도로가 고량포쪽으로 있다는 말만 듣고 물러나야 했다. 禹勤里에 관한 행정구역상의 현 위치를 확인해 본다면 敏燮氏가 제공한 문서들을 보면 우

다. 그리고 國立地理院에서 발행하고 1992. 1월 현재에 인쇄한 25,000분의 일 지도에 보면 현 휴전선과는 상관없이 禹勤里(우클리)는 연천군 백학면 내에 있어 북쪽에 還頭山, 서쪽에 龍虎山, 동쪽에 황계산이 있고 북으로 왕정면 구화리 임강리, 동으로 청정리 서쪽으로 석주원리가 있으며 북서방향에서 고천이 남동방향으로 흐르는 沙尾川과 합유되고 우클리는 이 사미천 서쪽 큰골짜기가 홍농고개로 이어진다.

지도상 “항골”은 이 골짜기 초입에 있는데 산세와 등고선을 보고서는 忠敬公의 산소가 이 골짜기의 좌편인지 右편인지를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亥坐라 했으니 참고가 될 뿐이다. 연로하신 분으로 해방되기 전인 1945년 이전에 성묘를 한 적이 있다는 분이나 6.25사변시 북진했을 때 가서 본 일이 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지도상으로 정확히 묘소의 위치를 지적해 주시는 분을 상면해보지 못했으나 고향이 파주군 적성면인 21世 甲尙氏(75세 강동구 명일동 거주)의 말에

府 左贊成 行義興衛上 護軍 南陽洪義老의 묘가 있고 바로 밑에는 부인되시는 淸江公의 따님이신 令人 瑞原廉氏의 산소가 있다. 이 두 분의 묘제를 보면 가로 약 2메타, 세로 약 10메타가 되는 장방형묘로서 묘변에 둘로 사방을 약 1메타 높이로 쌓고 높이 약 4자 넓이 약 1자반 되는 비석이 있는데 오래되었지만 판독은 가능한 비석이 서 있었다.

이 산소의 左麓 밑에서 보아 우측능선에 오래된 장방형의 같은 묘제의 산소가 한 군데 있는데 비석은 같은 크기로 판독하기가 어려웠다. 처음에는 상석을 옮기고 지석을 확인코저 짚어 봤지만 알 수 없었고 비석을 자세히 살펴니 廉字 같기도 해서 다음번에 탁본을 해 보았지만 그래도 판독할 수는 없었다. 더우기 관심이 가는 것은 옛부터 근방이 염씨들의 선조산소였다는 마을사람들의 구전과 朴氏, 洪氏들이 근년에 산소를 새로 쓰면서 오래된 여러 개의 비석과 상석을 뽑아 한 쪽으로 치우면서 이것을 못 보게 감추어 놓았고 洪氏, 朴氏성의

쪽에 사시던 여러 지역의 선조분들께서도 이 길따라 성묘하셨으리라 연상하니 감회가 깊다.

昌勳, 敏變 두 분은 얼마전 오셨던 길이라 헤매이지 않고 잘 포장된 37번 도로를 따라 복상하여 문산, 적성을 지나 예정했던 연천에는 아침 9시 전에 도착했다. 공무원이 아직 출근전이라 일행은 군청앞에서 요기를 하고 바로 군청을 찾아 長湍郡 江南面 禹勤里의 현 위치를 물었다.

우리 坡州廉氏의 門中에서 최초로 발간한 甲申譜(숙종30서기 1704년)부터 최근에 光州에서 발행한 丙寅譜(1986년)에 이르기까지 10種이 넘는 族譜에서 中始祖이신 忠敬公의 墓錄을 보면 대개가 長湍郡 江南面 大谷原 亥坐로 되어 있다. 거의 모든 族譜에서 長湍郡이란 地名에는 일치되고 있지만 面單位의 지명에서는 江南面이 많지만 간혹 南面, 江西面 혹은 大江面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面以下 지명으로는 禹勤里(우근리), 禹勒里(우럭리), 于勤里(우근리), 于勒里(우럭리), 大谷里(대곡리) 등으로 기록되어 있고, 里以下 마을이름으로는 없는게 태반이나, 1927. 12. 1부 연변에서 발간된 기록에 보면

墓表의 처음것은 알수없으나, 묘비가 훼손된 것을 본 代孫들이 다시 세우기로 하고 공의 사위이시던 洪微의 13대손인 당시의 京畿 觀察使였던 洪啓禧가 글을 짓고 洪啓祐, 洪相益이 비문을 써서 英祖 38년 壬午 서기 1762년에 墓碑를 다시 세웠고(비문은 전해지지 않음) 坤位이신 安東 權氏의 墓表도 英祖 52년 丙申 서기 1776년 4월에 14대 후손 德天 15대손 宗愼, 宗謹 등이 힘을 모아 경기 관찰사 洪啓禧가 글을 짓고 洪啓祐, 洪景顔이 글을 써서 乾位 府院君 墓左 右岡王坐 묘전에 다시 세웠다.(이때의 묘표 비문은 탁본 후손 敏變 보관)

忠敬公墓와 配位墓의 제사 비용등에 쓰인 토지(位土)의 地籍을 보면 山林이 5町1反4 畝1步(약5만평)이고 大江面 禹勤里 田이 57지번에 1,006 坪, 58에 374평, 338에 2,181평 계 3,561평이고 대지가 339지번에 1,495평, 347에 11평 계 1,506평이며 논이 368지번에 1,766평, 369에 2,426평 계 4,192평이다.

이상이 지금까지 우리 門中에서 알고 있는 忠敬公의 산소위치에 관한 기록들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하여 연천군청에서 長湍郡 江南面 禹勤里

선 乾隆25년 10月(英祖36, 서기 1760년)에 발간된 長湍府 屬地란에 보면 당시 장단에는 16개면이 있었는데 그 中에서 江南面에 보면 (坊內 獨正), (청정), (禹勤) 등 3개 里가 있는데 우근리에는 65호가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서기 1400년 후반기 이조 成宗代 盧守愼이 쓴 東國輿地勝覽 권12에 있는 장단군 陵墓란에보면 廉臣墓는 在臨江縣 大谷原(현 지도상 임강리는 우근리 北쪽, 九化里 동쪽, 旺證面內에 있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舊韓末 行政구역도상의 長湍面 편에 보면 장단군에는 20개면 68개의 洞里가 있는데 (禹勤里), (靑廷), (獨正)의 3개 里가 江南面에 속해 있다. 또 日帝時인 大正3년(서기 1914년) 관보에 실려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道令 告示에 보면 長湍郡에는 10個面이 있고 里洞의 數는 67개라 하였고 그 中 大江面 편에 옛 江南面內에 있던 靑廷里 篤正里 禹勤里는 大江面에 속해 있고 우근리안에는 옛 강남면에 있던 우근리, 독정리 강서면 상리의 각 1部가 포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근리가 속한 면은 이때에 江南面에서 大江面으로 변경되었다고 확인된

의하면 20대의 젊은 시절에 조부님따라 忠敬公묘소에 성묘했던 일이 생각나는데 그때 백학에서 강을 건너서 신장으로 따라 복상하는 원편에 우근리 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로 들어가 30분이상 걸으면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서 북쪽을 향해 左편(서쪽) 산에 산소가 있고 입구에 큰 비석이 있으며 비석옆에 조그만한 山亭이 있었고 좀 떨어져서 민가도 보였다는 기억을 말해 주었다.

만일 한 번 성묘한 일이 있고, 족보도 유심히 살피는 지금 65세가 넘는 구세대가 가고 통일이 늦어져 후세들이 중시조의 산소를 찾게 된다면 이상에서의 기록과 족보상에 수록된 墓山圖만으로 찾아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언제, 누가, 어떻게 찾을고 하는 근심이 마음을 울적하게 한다.

근처 위치를 이는 염웅섭씨의 안내로 연천군 백학을 두 일리 산 149의 2번지 소재 산소 위치를 답사했던바, 거기서 密陽朴氏 元忠 昌平公과 종종 산소들이 있는 곳으로, 사적으로는 임란때 공이 있는 毅烈公(의열공) 朴普장군의 산소가 있고 그 바로 밑에 淸江公의 사위되시는 崇祿大夫 議政

마을사람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우리 일행에게 자세한 말들을 기피하고 있는 점들이 몹시 안타까웠지만 당장으로는 더 이상의 다른 사실은 알 수가 없었다. 우리 일행은 미련을 남기고 뒷산으로 올라 지도상 忠敬公의 산소가 있는 방향으로 갈수있는데 까지 갔었지만 산 봉우리마다 아군과 북쪽의 초소만 가까이 보이고 이북에서의 대남 방송소리만 들려 그 안타까움에 昌勳대부님은 여기가 산소에서 제일 가까운 듯하니 바라보고만이라도 절을 할 수 있는 望拜壇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다시 지도를 보니 고량포와 두일리와 우근리는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더우기 우근리는 휴전선 북방한계선상에 있어 설사 지금 이북에 사는 일반주민으로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으니 忠敬公 산소를 성묘하려면 아무래도 통일이 된 후에야 가능할 것 같으니 이번 우리 일행의 답사와 이 기록들이 지금 세대들이 가고 난 후에라도 후손들이 中始祖님의 산소를 찾게 될 때 길잡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이 간절하다.

(宗桓)

一東亭公의 詩稿一

公께서 順寧縣 金沙莊(지금의 여주군 金沙面)에서 한때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침유정(枕流亭)을 짓고 당시의 심정을 읊으신 詩中에서 몇 편을 감상하고자 한다.

비록 귀양살이지만 정각에 단청도 하고 두루 나무도 심고 화초도 가꾸지만 적정한 환경 속에서 수도승과도 같은 생활을 하면서 늘 많은 책을 두고 탐독하고 가끔 찾아오는 사람과도 만났을 것이다. 이때 찾아온 친구 牧隱 李穡과 함께 읊은 金沙八詠이 高麗 名賢集에 실려있다. 이 밖에도 많은 글과 詩句가 있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흔적을 보지만 原韻은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고려에서 이조로 정권이 옮겨지는 와중에서도 고려말의 높은 관직에 있었음에도 용케 살아남아 李朝初에도 權臣에 잠시 등용된 牧隱의 文集만을 봐도 너무나 많은 詩句가 東亭公이나 淸江公의 詩에 和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公의 글월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고려말에 혁명세력편으로 보면 자신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된 역대공신의 집안인 廉門이 불시로 멸문되다시피 되는 참화를 입고 가재도구나 서적들을 보전할 여유는 생각치도 못하고 살아남기조차 육되고 어려웠을 것이다. 각지로 흩어져 수대를 숨어 살면서

어찌 집안에 있던 문집이 어찌 전해질 수가 있었겠는가. 그저 살아남은 다른 성씨의 문집에서나 역사의 기록속에서나 자취를 더듬는 정도이다. 公의 題 枕流亭 詩稿中에서 금사거사(당신 자신을 지칭하는 듯)의 침유정엔 버드나무 은은하여 더운기운 가시고 귀 쯤고 세정일 듣지 않으니 다만 개천에 졸졸 물흐르는 소리만 들릴 뿐.

“金沙居士 枕流亭
楊柳陰陰暑氣晴
洗耳不聞塵世事
潺湲只今小溪聲”

여주강은 유유히 흘러 용문고울을 감싸고
강 건너 기슭의 어부들배는 먼 곳에서 왔겠지

해지고 늦게 돌아온 농부는 말이 없고
그저 온들판 벼농사가 잘되기만을 기원하네.

“驪江渺渺拱龍門
隔岸漁燈認遠村
田父夜歸無雜語
但祈禾稼滿郊原”

높고 낮은 보리밭 넘어 연못엔 물가득차고
강변에는 황폐한 마을이 적적하네

속정의 분망하고 시끄러운 일들을
저 모래위의 백조는 소식을 알겠지

“麥隴高低水滿池
荒村寂寂傍江濱
紅塵南北紛紜事
說與沙頭白鳥知”

이런 시들을 감상하며 느끼는 것은 公은 고려말 조정에

서 요직을 역임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과감히 처결한 權臣이라기 보다는 만사를 유유히 시세의 흐름에 따라 처리하며 수도승보다 더한 경건함과 자비심이 넘치고 풍유객을 방불케 하는 公에게 누가 왜 탐관오리라는 오명을 역사속에 남겼을까. 가장 치욕적인 그 말 아니고는 자신들의 만행을 변명할 구실이 없었고 민심을 자기편으로 유도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 여겨질 때 권세의 처절함과 몰염치성이 마음을 울적하고 만다. 위의 시구에서 느끼는 公의 어질고 초연한 심기를 조금이라도 이어받아 지금의 우리 후손들이 슬기롭게 사는 좌우명으로 삼고 싶다.

(林內樵夫)

日帝침략에 항거한 義兵將 廉在輔

깃발을 세워 3월경에는 보성군 石虎山에 주둔하고 각지에 방을 돌리니 의병이 더욱 모여들었다. 이때쯤 각지에서 봉기한 義兵이 늘고 애적과 싸

이라 불렀다.

3월 후 적은 보복으로 大原寺에 반격해 왔으나 公은 이를 미리알고 요지에 매복하여 적을 공격하여 또 수십명의

헌병대와 합세하여 의병활동을 압박하기에 公은 再起 출진하여 7월 28일에 文德面上 眞山에 적을 유인하여 기습공격하였으나 탄환이 떨어져 후

이하 수십명을 사살하였다. 이렇듯 의병 50인으로 출발하여 수 100명의 의병을 모아 각지에서 공을 세우며 항전했지만 보성은 서울에서 멀고

廉在輔의 字는 仁瑞이며 忠敬公에서 17世孫인 諱 鍾煥과 母 晉州姜氏의 사이에서 태어난 3男중 둘째아들로서 1868년 12월 24일 寶城郡 文德面에서 태어났다.

어릴때부터 기계만지기를 좋아했고 무예에 능하여 특히 사격술이 탁월하여 사냥을 즐겨하였을때 어른들의 훈계를 들을 때마다 요새 같은 시국에 사나이가 더 큰일이 있다며 위세가 당당하고 삶에 확신이 있었다.

성장하면서 列強들이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실상을 알고 부터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있던차에 일제는 光武8년 8월에 한국과 1차 한일협약에 이어 1905년(光武9년) 11월에는 소위 乙巳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함으로써 이때부터 사실상 나라주권을 잃게 되고 침략상이 구체화되면서 그 영향이 전 국토에 미쳐 수탈이 극심해지자 1906년 谷城의 최면암(崔勉庵)선생이 국민을 향해 필기하라는 격문을 읽고부터 공은 분노를 참지못하였다.

결코는 무력으로 항거할 것을 맹서하고 1908년 주변 각지를 돌며 의병을 모집하고 安桂洪을 추천하여 주장으로 삼고 스스로는 副將이 되어 孫德五, 鄭基贊 등 50여인이 모여 兵器를 마련하고 군량미를 모으는 한편 훈련을 거듭하여 隊伍를 정하고 義兵의

위 전과도 올리지만 적은 조직된 정예병이고 물자나 수적으로 월등하여 의병들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長城의 奇敬老, 昌平의 高瑞白, 승주의 梁海心, 羅州에서의 金泰元, 順天의 趙國柱 등은 싸우다 戰死하였고 주변에서는 오직 咸平의 沈南一만이 활발히 응전하고 있었다. 이때 沈南一將이 와서 합세하여 싸울 것을 제의해 왔으나 싸움의 성질상 다수의 의병들이 모여 적과 정면대전해서는 승산이 없고 유격전으로 임기응변의 기지로서 대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리고 상호 연락만 긴밀히 하자는 약속만하고 헤어진다.

얼마후 보성군 동서산(桐巢山)에 주둔하면서 부근 각지에서 일제에 아부하며 첩자가 된 자들을 색출해서 이를 응징하고 3월 26일에 일행이 보성군 鳥城에 진출하였을때 왜군 육군의 8중대 병력을 得根面 坡靑殿 비둘기 고개에서 조우하여 이를 공격해 적의 중대장 나가도(永戶久雄)를 위시한 수십명의 적군을 사살하니 지휘관을 잃은 적은 혼비백산이 되어 퇴각한다.

公은 왜적을 추격하여 거의 전멸시키고 다량의 탄약과 군수품을 노획하여 文德面 大原寺에 개설했다. 그 후 이 싸움에서의 전과를 기려 이 고장에서는 파청대첩(坡靑大捷)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로서 의병의 활동상이 주변에 전해지자 잠시 적세가 주춤하였으나 적은 이웃군에 주둔하면서 교통을 차단하고 약탈과 학살을 더해가며 압박해왔다.

4월 7일에는 文德面 加嶺에서 적을 기습하여 큰 전과를 올렸고 13일에는 和順郡에 주둔한 적 헌병과 同福 雲月峙에서 조우하여 무려 12시간을 싸워 많은 戰果를 올렸으나 이 싸움에서 竹山人 朴浩 등 義兵이 戰死하였고 26일에 福內面 樓鳳山에 주둔중 적의 기습을 받아 의병 趙秉基 등 수명이 전사하였다. 이 싸움에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의병들을 이동하였으나 동지를 많이 잃은 공은 많은 가책을 느끼고 심정이 착잡하든차에 老母의 병환소식을 전해듣고 부득히 陣을 잠시 떠나 고향에 돌아와 보니 고을은 일제의 압정이 더욱 심해지고 더욱이 의병으로 출정한 공의 가족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처지였다. 공은 老母와 가족들을 일시 숨게하고 陣으로 돌아와 보니 의병들은 지난번의 손실로서 기강은 이완되고 사기는 떨어져 있었다. 공은 安將과 더불어 분발하여 의병을 재정비하고 보강하였는 바 이즈음 적의 기병대 와다나베(渡邊廷秋)의 정예중대는 福內面 元峰里에 주둔하여 順天지구의

퇴하고 말았더니 적은 보복으로 주민을 억압하고 동민 李員杓 부부등을 살해하여 그 참상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었다.

9월 13일에는 順天의 헌병대 병력과 文德面 外加嶺에서 고전하여 수명의 적을 살해했으나 의병 포장 李永三 등이 전사하였다.

11월에는 의병을 선발하여 高興에 상륙하여 적의 병영과 창고등을 소각하고 환군하여 보성군 栗於 長水洞에 주둔하였다.

1909년 2월초에 장흥세무감독이 수세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을 쫓아버리자 헌병들을 호위로 하고 福內 平丹里에 침입하여 민가 수십호를 불사르니 공은 출격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며 2월 12일에는 母親喪을 당하여 고향에 돌아와 보니 동민은 물론 공의 가족 친척에 대한 적의 만행이 심해지고 있었다. 공은 형편에 따라 물만 떠놓고 모친을 장사지내며 적은 병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 비통만 할 뿐이었다.

4월 4일에는 의병 劉且三의 분대를 시켜 福內 시장에 잠입케 하여 외적 3명을 몽둥이로 타살하고 병기등을 노획하고 돌아왔다.

4월 20일에는 적 7중대 병력과 보성 호곡에서 대전하여 적의대장 히라이(平井攤市)

나라의 운이 기우는 정세에 있어 8월에는 왜적도 많은 병력을 도별로 나누어 주둔시키니 적은 정교한 병기와 풍부한 보급품을 보유하는 훈련받은 정기 정예부대인지라 모든 면에 세가 부족한 의병들의 극지 유격전으로 서는 더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얼마후 조직적이고 치밀히 압박해 오는 적앞에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의병은 굼주리고 쇠약해서 점차 분산되고 이윽고 安將 柱洪과 孫德五, 鄭基贊이 적에게 잡히게 되고 1909년 8월 20일에 公도 적에게 잡히는 몸이되어 光州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1910년 3월에 대구형무소로 이감되고 6월 12일에 장년 42세의 나이로 구국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한을 남긴채 형장의 이슬이 된다.

配 天安金氏와의 사이에 수옥(守鉦), 승옥(勝鉦) 두 형제를 두었고 嗣孫 詰浩氏는 지금 文德面 양동리에 살고 있는 바 祖父께서 坡靑싸움에서 정장 나가도(永戶久雄)에게서 노획한 대검을 소중히 보관중이며 공의 공적이 늦어서야 알려져 1977년에 大統領으로부터 공이 있는 愛國志士로서 대한민국 건국포장(建國褒章)이 추서되었다.

—松隱公의 貞節—

公은 中始祖이신 忠敬公의 嗣孫이시고 菊坡公의 長子로 松隱은 號이다.

公은 어려서부터 英明하여 文忠公 圃隱先生에게 受學하여 두터운 忠孝를 본분으로 삼아 문장과 덕행이 뛰어나 사림에서 선망의 표적이었다. 禡王元年 乙卯(1375년)에 文科에 급제하고 祖父께서 돌아가신 壬戌3月(1382년)에는 親御軍 護軍벼슬이었다. 그 후 公은 奉翊大夫(從二品)로 王命의 出納과 宮中の 宿衛와 軍機 등의 實務를 수행하는 密直司의 同知密直司事와 商議會議 都監事, 上護軍이고 氏族의 譜牒을 관장하는 宗簿寺의 判宗簿寺事를 兼任하셨다. 牧隱, 治隱과도 道義로서 사귀었으나 公의 力量이 맘껏 發揮하려던 靑壯期의 나라사정은 순탄하지를 못하였다. 이때는 高麗國運의 末期로서 역대의 훈신들과 신군부 개혁파간의

높은 분들이었다.

한편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부상한 패기의 李成桂는 그의 야심을 확장하면서 戊辰年초에 이르러 目標를 혁명으로 정하고 반대세력의 축출로서 실전의 첫 출발을 하게 된다. 사태의 발단은 東亭公의 家奴 李光이 白洲에 있는 趙胖의 땅을 두고 소유권을 다투기에 東亭公이 李光을 시켜 돌려주라고 하였는데 趙胖이 李光을 살해하게 되자 조반을 치제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규명하려는 東亭公에 대항하여 조반은 李成桂를 의지하게 되고 이성계는 또 元老 崔瑩을 이용 함세하여 어린王의 命을 얻어 東亭公을 부정축재를 일삼는다는 죄목으로 옥에 가두고 이를 옹호하려는 權臣 林堅味(동정공 사위 林치의 父)마저 투옥하고 淸江公, 洪徽, 任獻(두 분 다 동정공의 매부)와 任獻의 세 아들을 가두

逆臣故爲...

(林, 廉은 고려의 순신이고 이조에는 역신인바 고려를 지키다가 멸문이 되었다. 조준과 조반은 비록 이조에는 순신이나 처음 그들이 섬긴 고려로서는 역신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李朝초에 벌써 무진년 정월에 있었던 대학살의 동기를 객관적으로 바르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늘이 부끄러운 만행을 치르고 난 직후인 2월에 明나라를 부터 鐵嶺은 원래 元나라 땅이었으나 이제 우리 것이니 여기에다 병참기지를 설치하겠다 하고 요구해 오는 소위 鐵嶺衛問題로 明나라와의 관계가 긴박해 진다. 단호히 이를 저지한다며 3월에는 전국에 증병령을 내려 군사를 뽑고 4월에 崔瑩을 都統使로 李成桂를 右軍 曹敏修를 左軍으로 하는 出征軍 4만여의 兵力이 遼東정벌의 길을 떠난다. 王과 中軍은 中間인 평양에 남고 5월에 압록강威化仕島에 左右軍이 진주하였을 때 李成

이 모습을 보고 圃隱先生은 詩를 지어

河水蒼茫 不見洲
風濤盡日 蕩孤舟
梢工隻手終多力
能使行人穩涉流

(하수는 창망하여 문 보이지 않고, 바람·파도는 종일토록 고주를 흔들어도 사공은 척수로도 힘껏 배 저어서 행인을 편안히 물건너게 하리라.)

또 吉再治隱도 詩를 지어

滄桑一世 兩衰翁
涕淚相從 落葉風
祇把丹心 期不負
柴門長掩 碧山中

(뒤 바뀐 한 세상 힘 잃은 두 늙은이

서릿바람에 낙엽지듯 눈물 흘리고

일편단심 굳은기약 간절히 지키며

靑山속에 사립문 닫고 사네.)

이렇듯 公의 抗節德名은 后世에 까지 貞忠大節의 귀감으로 삼았다.

李成桂는 王이 된 후 公의

人間但願 夷齊死
地下同從 圃牧遊

(나라 잃은 외로운 신하 어느 덧 흰머리 성하고 사립문 닫고 호젓이 살아온지 벌써 13년

사람은 오직 백이숙재의 절의를 지켜 죽어서

지하의 포은, 목은선생따라 노닐거나.)

이러한 詩句를 통해 公의 盡忠의 생각과 貞節을 지키며 여생을 이어가신 생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詩가 많이 있다고 하나 傳해지지를 않는다.

이와 같은 家門의 節義를 가상하여 漢水가에서 耕雲釣月的 생활로서 돈세하시느 公의 아우되시는 耕隱公을 太宗은 1411년은 工曹參議의 벼슬로 出仕케 하여 王朝初의 잘못된 일들을 변명하려 明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어 무사히 책무를 다하고 돌아오게 한 후 外職인 黃州牧使로 삼았다가 온갖 구실로 무고하여 도태하고 만다. 잔인한 혁명에서

갈등이 심화되어 기강은 문란해지고 빈부의 차이가 극심해져서 민생이 어려운 때에 대외적으로 지금까지 友好관계에 있던 대륙에서의 元나라 세력이 약화되고 1368년 帝位에 오른 朱元璋의 明나라가 중원을 점거하게 되자 外交面에서 元과 明을 두고 어느쪽을 따를 것인가 하고 의견이 합—되지 못하여 침략하려는 위협속에서도 대처를 못하고 있는 때에 南方에서는 왜구의 창궐이 극심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에 李成桂를 中心으로 한 신군부는 훈구파세력의 李仁任, 林堅味 등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禡王14년 戊辰(1388년) 정월에 우리 坡州廉門은 참변을 당하게 된다.

고려초부터 시작하여 역대 왕을 가까이서 모셔온 廉門이 일시에 참화를 당하게 되는 戊辰年의 상황을 우리들은 좀 자세히 알아 당시 선조님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고 이때부터 이조말의 근세에 이르기까지 드러나게 나라일에 나서지는 않지만 외침을 당하는 어려울 때는 몸을 바쳐 싸운 우리 廉門의 600년이 넘는 생활상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시 忠敬公의 뒤를 이은 菊坡, 東亭, 清江의 세 형제분도 국정의 핵심부에 위치하여 충성을 다하며 어질고 학문을 선호하는 선비로서의 덕망이

있다가 죽게 하고 만다. 이어서 東亭公과 林堅味와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보에 쌓인 어린이까지 1,000여명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 때 不正축재를 했다고 죽인 任獻의 집을 수색했을 때 집에는 곡식 한 섬도 없는 청빈함을 보고 사면하라는 주청이 있었으나 최영 등은 東亭公의 매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죽게하자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다는 기록이 역사에 전해진다. 그리고 이 해 正月 癸巳 18日에는 菊坡公과 松隱公(일설로는 公은 풍악산에 있어 화를 면했다고 한다) 安祖同(公의 매부), 尹璵(東亭公 사위)를 죽이고 지금까지 사형시킨 사람들의 가족은 다 옥중에서 고문으로 죽었고 자손들은 다 잡아들여 죽이고 아이들은 강물에 던져 죽이자 국내 모든 사람들이 크게 만족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춤을 추었다며(瑩及太祖—이성계—憤其所爲 同心協力導禍除之國人大悅道路歌舞—고려사 권제126, 열전39 임견미전—) 이렇게 자랑인듯 정인지는 고려사에 기록하여 林堅味와 廉興邦을 당 시대에 不正축재의 원흉으로 매도하였지만 얼마 안되어 世宗代의 文臣 成三問, 申叔舟, 崔恒등이 奉敎書한 雪冤錄에 의하면

林 廉麗氏之順臣而 國朝之逆臣故 衛麗氏 而以貴而滅門 浚胖則 國朝之順臣而 麗氏之

桂는 王命으로 進軍하고도 “四不可論”의 口實을 들어 曹敏修를 설득하여 창칼을 松京으로 돌린다.

이를 맞아 崔瑩은 중간에서 저지했지만 패퇴하고 李成桂는 6월에 松京으로 돌아와 禡王을 강화로 내쫓고 崔瑩도 高峯(지금의 高陽郡)으로 流配되었다가 나중에 주살당하고 만다. 그리고 곧 9歲의 어린 昌王을 세우고 李成桂는 스스로 次相인 守侍中이 되고 명분을 세워 李穡을 侍中으로 삼는다. 後世의 史家들은 高麗 멸망의 동인을 威化島回軍이나 戊辰년의 폐왕사건을 그 계기로 삼지만 필자는 무진년 정월의 대학살의 만행을 그 시작으로 삼고 싶다. 그 후 李成桂는 1년후인 1389년에 昌王도 죽이고 恭讓王을 세웠다가 原州로 쫓고 1392년 7월17일에는 朝鮮王이 된다. 급격히 그리고 무도하게 이루어진 易姓革命의 과정속에서 요행이 楓岳山에서 화를 피하게 된 松隱公께서는 살아남게 된 것마저 부끄러히 여기며 男山으로 돌아와 아드님 閉窩公과 더불어 麗朝의 冠服을 松京 남문밖 동산 나무에 벗어 걸어두고(후세사람들은 이 나무를 掛冠樹라 했다) 王建太祖의 顯陵이 있는 萬壽山기슭 西杜門洞으로 들어가 움막을 짓고 外人과의 접촉을 끊고 節義를 지키며 여생을 사신다.

忠節과 어진 心情을 알고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禮曹參判의 벼슬로 예우하려 하였으나 公은 굳게 사양하고 본래의 뜻을 이탈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公의 心思를 詩로 적어 牧隱先生에게 보낸 것으로

根支危石 輕霜雨
枝捍勁風作雨雷
從來默檢盈虛數
獨也他時爾不催

(巨岩에 지탱한 뿌리는 눈서리아 가볍게 견디고
강풍에 가지는 보호되나 우되는 어찌 이길고
지난세월의 사연들을 헤아려 보고
혼자이지만 어찌 다른곳에 귀기겠는가.)
세한의 모진 풍상에도 굳건히 푸르름을 간직하는 松柏의 절의 같은 기상을 느끼게 하는 詩句이다. 또 公의 詩로

此生 無地 寄餘生
生亦何爲 死可榮
一哭秋雲尋處去
西山落日照心明
(몸 부처 살 땅 없는 이 세상
에
살아서 무엇하리 죽는게 영광일세
가을구름 간 곳 따라 눈물 지니
서산 지는 해에 밝은 마음 비치네)
또 公의 詩에
亡國孤臣 已白頭
柴門一閉 十三秋

홀어진 민심을 유화하려는 술책으로 기용했다가 끝내는 욕되게 제거해 버리는 더러운 술책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公의 아드님이신 閉窩公의 行蹟을 개관해 보건대 諱는 怡이시고 벼슬은 僉知通禮門事시다. 李朝가 되자 父親을 따라 西杜門洞으로 들어가 스스로 閉窩라 號하여 돈 세하였으려 詩文에 뛰어나 저명한 분들과 화교했다고 하며 黃菊歌, 彩薇歌 등 詩作이 많다고 하나 傳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자손들에게 遺戒한 글로서

忠孝爲本 經學爲業 以保門戶
勿事科第 勿求官達 以遠禍辱
至今吾門諸昆之世襲 忠孝清寒爲業者 所由來于
(충효를 근본으로 삼고 경학을 업으로 하고 문도를 건전히 보전하되 과거보는 일에 연연치 말고 관직이나 영달을 구하지 말고 화욕을 멀리하여라. 우리집안의 후손들이 충효와 청빈을 세습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본 뜻에서 유래된다)고 하였다. 참으로 父親의 뜻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하신 면모를 알 수 있다. 일설로서 벼슬이 올라 品階가 奉正大夫(正四品)라 하나 이러한 品階의 位는 李朝에서의
(다음面 하단으로)

평생을 의롭게 산 청지기

길에서 주운 은전 600냥

지금으로부터 314년 전 조선조 顯宗 때 세상사람들이 廉義士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서울 한복판 壽進坊(지금의 종로구청 근처)에 살면서 평생을 善行과 義를 위해 살았다. 그가 바로 廉時道라는 高潔한 사람이다.

그는 奎章閣本 記聞叢話와 회조질사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熙朝軼事는 조선의 문신 李慶民이 쓴 책이다. 字는 元會요, 호는 雲岡, 本貫은 江陽이며 벼슬이 僉知中樞府事に 이르렀다. 단기 4137년(純祖 4년)에서 4216년(高宗 20년)에 걸쳐 살았던 청렴결백한 선비였다.

時局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鄉里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이웃에 善行을 베풀고 藝能 등 전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들이 점차 湮滅되기 전에 후세에 전하기 위해 熙朝軼事란 책을 編述하였다.

그 책 속에 廉時道란 인물이 있어 소개하려 한다.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간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래서 허적 대감도 內心으로는 염시도를 아끼고 사랑했다.

許大監은 마침 심심하던 차에 大門 안으로 들어오는 염시도를 불렀다.

“여보게! 그대가 보자기에 싸 들고 오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대감이 이렇게 묻자, 사랑 앞으로 와 허리를 굽히며

“항송한 말씀이오나 소인이 어디를 좀 다녀오는 길에 길에서 이 것을 주웠습니다.”

“음! 노상에서 그 것을 주웠다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예! 銀錢 600냥이 들어 있습니다.”

“뭘! 은전 600냥이라고, 그대가 오늘은 큰 橫財를 했네 그려”

허대감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자 시도는 대뜸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옵니다. 길에서 주운 것이라 해서 소인이 어찌 남의 財物을 함부로 갖겠습니까? 어느 분이 잃어버린 돈인지 모르겠으나 소인은 이제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不當한 處事인 줄로 아뢰옵니다.”

“하하하! 그대의 말대로 내가 잘못했네. 그대처럼 바른 길을 걷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後日 큰 慶事가 있으리. (積德之家 必有餘慶)” 허대감은 破顏大笑하면서 염시도의 正直함에 다시 한번 內心으로 크게 感歎하였다.

소녀의 청을 거절한 염시도

다음날 아침 허대감은 염시도를 다시 불렀다.

“어제 길에서 주운 600냥은 주인을 찾아 주었는가?”

“대감을 뵈은 즉시 市中에 내가 百方으로 주인을 찾아 보았으나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찾아볼 생각입니다.”

“음, 내가 어제 밤에 들으니 兵曹判書 金錫靑 大監宅에서 말을 한필 구하려고 下人에게 銀錢 600냥을 주어 말을 사오게 한 일이 있다는데 혹시 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인지 모르겠으니 그宅에 알아 보게”

는 말값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金大監의 질문이었다. 지금까지 치를 벌벌 떨고 있던 姜서방은 일변 喜色이 滿面해지고 일변 송구함을 금치 못하면서

“大監님 뭐라고 여쭙 말씀이 없사옵나. 실은 小人이 大監님의 분부를 받자옵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술을 먹다 보니 그만 過飲을 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사옵나. 그리하여 며칠을 두고 四方으로 찾아헤매였사오나 도저히 찾을 길이 없사옵기에 하도 面目이 없어서 오늘은 자결이라도 할 決心을 하고 있던 중이옵는데...”

그 소리를 듣자 廉時道는 미리 가지고 왔던 돈 보따리를 姜서방에게 내밀어 주면서 “그러면 이 돈이 틀림없는가 확인해 보오. 多幸히 주인을 찾게되어 나도 매우 반갑소이다.”

하고 말하였다. 길에서 주운 財物을 돌려 주는 廉時道도 기뻐하였거니와 그 돈 때문에 죽을 결심까지 하고 있었던 姜서방으로서는 고맙기 限量 없었다.

니까. 大監님의 분부이오나 그분부만은 못 들겠사옵나.”

하고 廉時道는 謝禮金조차 固謝하고 金大監앞을 물러나왔다. 廉時道와 姜서방이 함께 兵曹判書宅을 물러나오니 大門 밖에서는 강서방집 온 食口들이 한데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야단법석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姜서방이 主人大監宅 말값을 잃어버리고 大監한테 불려 들어갔으니 必是 큰 罰을 받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姜서방은 그 때문에 며칠 동안 밤잠을 못자고 고민하다가 이제는 자결할 각오까지 하고 있는 形便이 아니었던가. 강서방은 食口들을 일싸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廉時道를 食口들에게 紹介하였다.

그런 뒤에 廉時道 德澤에 돈을 찾게 되었노라고 설명했더니 食口들도 廉時道에게 百倍謝禮를 했지만 특히 강서방의 마누라는

“世上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나이까. 우리 大監은 워낙 성미가 사나우셔서 돈 잃어 버린 것일 발각되는 날에는 날벼락이 떨어지겠으

지금으로부터 314년 전 朝鮮 顯宗 때의 어느 초여름날이었다. 영의정 벼슬에 있던 默齊 許積 대감은 막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으로 나왔다. 혼자서 활짝 열린 사랑문 밖을 내다 보며 유유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청지기가 들어왔다.

청지기 염시도가 무엇인가 보자기에 썩 것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 오는 것이 아닌가. 청지기 염시도는 나이 30을 넘은 사람이지만 위인이 워낙 清廉強直할 뿐 아니라 學識과 知覺도 보통이 아니었다.

그의 신분은 비록 청지기에 불과하지만 主人大監이라도

터 주인을 찾아서 이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염시도는 워낙 정직한 사람이라 그의 말에는 秋毫도 거짓이 없었다. 허대감은 소리내어 웃으면서
“그대가 워낙 清廉潔白하고 正直하여 物慾이 없는 줄은 알고 있지만 길에서 주운 것이라면 구태여 주인을 찾아줄 것까지야 없지 않은가? 더구나 그대는 생활도 넉넉치 못한 形便에 그 돈을 아예 생활에 보태 쓰는 것이 어떤가?”
“千萬에 말씀이옵니다. 옛날 先人들의 말씀에 見得思義라 했듯이 소인 비록 굶어 죽을 지언정 어찌 남의 財物을 내 것으로 삼겠사옵니까? 죄송한 말이오나 대감께서 소인에게

하고 高宗 庚寅(1890년)에는 保寧水絃祠에 享祀하고 있으며 行蹟이 長城 景賢祠誌에 전해졌고 近年에는 羅州 三榮洞에 父子분의 設壇을 하고 每年 가을에 大宗會 주관으로 享祀하고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麗朝忠烈傳, 景賢堂誌, 麗末忠義列傳.

(林內樵夫)

“황송하옵니다. 곧 알아 보겠습니다.”
염시도는 주인 대감을 물러나오자 그 길로 兵曹判書 金錫靑 대감댁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金大監 앞에 공손히 나아가
“문자옵기 죄송하오니 大監宅에서 혹시 말을 求하시려고 누구에게 돈을 주신 일이 있으시옵나이까?”
하고 물었다. 金大監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 내가 말을 한필 먹여 보려고 청지기 姜서방에게 말을 求해 오도록 銀錢 600냥을 준 일이 있네. 그런데 오늘까지 말을 求해오기로 했는데 여태 消息이 없네 그려... 그런데 그건 왜 묻는가?”

“다름이 아니오라 小人이 어제 길에서 銀錢 600냥을 주웠사옵는데 그 돈이 或是 大監宅에서 잃어버린 돈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이옵니다.”

“음 그래. 잠시만 기다리게 姜서방을 불러 물어봐야지”
金大監은 즉석에서 姜서방을 불려오게 하였다. 조금있다 姜서방이 오자
“그대는 오늘까지 말을 사오기로 했는데 至今 듣건대 이 사람이 路上에서 돈 600냥을 주웠다고 하니 혹시 그대

“世上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소. 당신이야말로 나의 再生之恩이요.”
하면서 廉時道の 손을 힘차게 붙잡고 감격의 눈물조차 흘렸다. 兵曹判書 金錫靑 大監도 廉時道の 清廉潔白하고 正直함에 탄복하여,
“그대의 清廉한 마음에는 거듭 歎服을 마지않네. 길에서 주운 돈을 主人을 찾아서 돌려준다는 것은 입으로도 形言할 수 없는 일일세. 나는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았으니 고마운 일이지는 하지만 만약 그대가 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600냥을 고스란히 잃어버리고 말았을 걸세. 그러고 보면 이 돈이 다시 내손에 돌아왔다는 것은 나로 보면 完全히 橫財나 다름 없는 財物일세. 이런 財物을 나혼자만 쓰기는 안될 일이니 절반은 자네가 갖다 쓰도록하게”
하고 돈 보따리를 내밀었다. 말하자면 300냥을 謝禮金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謝禮金이라면 으레히 받아줄줄 알았다. 그러나 廉時道는 卽席에서 고개를 좌우로 내저으며
“千萬의 말씀이옵니다. 小人이 이 돈에 慾心이 있었다면 통채로 먹어버릴 일이지 어찌 主人을 찾아 주려고 했겠사옵

로 우리집 영감은 자결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돌려주셨으니 이는 우리집 영감의 목숨을 求해 주신 것이나 다름 없소이다.”

하고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치하를 마지않았다.
“너무 과분한 치하를 받아 죄송합니다. 路上에서 주운 財物을 主人에게 돌려준 것이 무슨 큰 대견스러운 일이라고...”
“아니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 주셨으니 그야말로 再生之恩이 아니고 무엇이겠나이까. 多忙하시겠사오나 돌아가시는 길에 저의 집에 暫時들려서 약주라도 한잔 나누시고 가시옵소서”

“원 千萬의 말씀올”
“너무 사양 마시고 잠깐만이라도 들려주시옵소서”
廉時道는 굳이 사양 했으나 姜서방 마누라를 비롯하여 온 食口가 하두 붙잡는 바람에 마지못해 姜서방의 집에 들렀다. 姜서방 집에서는 世上에 둘도 없는 貴客을 맞이한 듯 야단법석이었다. 갑자기 술상을 차려놓고 主人과 손이 술을 몇 순배를 나눈 뒤였다.
姜서방의 딸이라고 하는 13歲가량 먹어 보이는 少女가 웃을 깨끗이 입고 방안에 나

(앞면에서 계속)

品階이니 돈거했다는 사실과 상치되고 禔王12년 丙寅에 及弟하였다고 하나 함자가 보이지 않는다.

(丙寅榜의 同知貢舉는 東亭公이 시었다.)

이와 같은 父子분의 貞節은 世代에 까지 빛나게 이어져서 哲宗 壬子(1852년)에 士論으로서 父子분을 錦江祠에 合亭

타났다. 얼른 보아도 容貌가 매우 단정했고 아름다운 少女였다. 그 少女는 廉時道 앞으로 나와 공손히 인사를 하더니

“오늘 저의 집 아버지를 살려 주신 恩惠는 이루 報答할 길이 없나이다. 少女는 그 恩惠를 百分之一이라도 갚아 볼까 하오니 원하옵건데 恩人께서 少女를 데리고 가시어 심부름 하는 계집아이로 써주시기 바라나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廉時道는 크게 놀랐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너의 집에 恩惠를 베푼 일도 없거니와 설사 그런 무엇이 있다 해도 내가 어찌 너를 데려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절대로 안될 말이다.”

“아니옵니다. 少女는 이미 恩人에게 몸을 바치기로 決心했사오니 부디 少女의 淸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기는 하다마는 恩惠를 갚기 위해서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 아예 그런 생각 말고 집에서 父母님에게 孝道나 잘 하여라. 恩人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오히려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하하!”

큰 소리로 웃으면서 少女를 순순히 타일렀다.

그러나 소녀는 무엇인가 決心한바 있는 듯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이 없었다. 恩人의 말을 拒逆하기가 어려워 따라가기를 斷念은 했으나 그에게 몸을 바치겠다는 決心

만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이날 廉時道는 隆崇한 待接을 받고 해가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겹쳐 찾아온 재앙

時間은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어느덧 13년이란 歲月이 흘렀다. 自古로 10년이면 江山도 변한다 하거니와 淸廉潔白하기로 으뜸인 義人 廉時道에게도 그 동안에 風波가 없지 않았다. 첫째는 사랑하는 마누라가 世上을 떠난 것이었다. 한 平生 苦樂을 같이 하던 마누라였다. 子女間에 血肉이 없기에 더욱 사랑하던 糟糠之妻였다.

그렇듯 사랑하던 마누라가 世上을 떠났으니 時道의 슬픔은 더 말할 길이 없었다. 친구

들 간에는 그에게 再娶를 勸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適當한 처자를 紹介해 주는 親舊도 있었다. 그러나 廉時道는 그 때마다 고개를 내저었다.

“三年喪 치르기 전에는 絶對로 그런 再娶를 하지 않으려네”

廉時道는 언제나 그런 對答이었고 또 진실로 그런 決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3년이 다 가기도 전에 그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悲運이 찾아왔다. 禍不單行이라고 재앙은 언제나 겹쳐서 오는 모양이다.

그 재앙이 무엇이나 하면 廉時道가 40平生 忠誠을 바쳐온 主人大監이 逆賊으로 몰리

게 된 것이다. 主人 許大監은 檀紀 4013년 肅宗6年 祖父 潛의 諡號를 받게 되어 祝賀宴을 베풀 때 宮中の 帷幄(帷와 幄은 모두 陣營에서 쓰는 장막임)을 함부로 使用했다는 事件으로 待罪하던 中 許大監의 庶子 堅이 三福事件 福昌君 福善君 福平君 등과 謀逆을 꾀한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 金錫胄大監의 告變에 依하여 그 事實이 탄로되어 官憲에게 逮捕되었으니 許大監도 逆賊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敏變(大宗會都有司)

— 고향의 유적들 —

陝川, 居昌, 咸陽의 3개군이 자리한 서부 경남의 지역은 사방 어느곳으로 간다해도 큰 고개를 넘어야 하는 분지이다.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에 둘러싸인 이 지방은 坡州廉氏 일가들이 오래 전부터 모여 살던 곳이다.

옛적부터 구전으로 전해지는 “염장군묘”가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입구에 있으며 5세

을 묘사때에는 고향을 찾는 일가분들이 요즘에도 많은 편이다.

지금부터 50년 60년전만 하더라도 이 지방의 산소와 제각, 정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일가의 많은 집성촌이 지금은 적어져서 그 흔적만을 보는 인상이다. 그 때는 한마을의 전체가 염씨 문중이고 타성씨가 몇채 있다 해도 염씨의 인척만이 살고 있었는데 요새 가보면 도리어 우리 일가가 몇 안되는 실상을 많이 본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에게 그

사람들이 다시 찾게 하고 자신들은 그 유덕을 현생활에 대입해서 실생활을 기를지게 하는 한편 관광명소로도 빛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느 곳은 있는 그대로도 보전못하고 황폐화되고 있을가 하는 안타까움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선조분들의 경륜이 실린 기록과 흔적들이 헛되이 방치되고 선조분들이나 성현들의 말이 단순한 과거의 사실로서 귀에 탈뿐이라면 전통과 고유의 가치는 소멸될 것이고 우리의 후

다.

고향을 찾을 때마다 또 하나 걱정이 되었던 것은 언제, 누가, 왜, 어떠한 방법으로 이곳 재실이나 정각을 건립했다 하는 정도의 안내문은 물론 없고 이웃에 사는 일가에게 그 내력을 물어도 의문점은 풀릴질 않는다. 재실이나 정각에는 당기와 상양문 그리고 선조분의 시구와 그 유적과 후손을 위해 지어주신 타성씨 어른들의 글월이나 시구가 현판에 새겨져 높이 걸려 있으나 돋보기에 시각을 의존하는

말고 항시 돌보고 조금씩 손질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찾는 손님을 대하고 특히 근처에 사는 일가들은 누구라도 유적들의 내력을 설명할 수 있게 하고 기록들을 복사라도 해서 보전한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값진 일이겠는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들은 우리 세대부터 각성해서 귀중한 보물을 보전하는 수고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고 절실히 느꼈다.

(林內樵夫)

祖 戶長公 諱 榮東, 6世祖 將仕郎公 諱 壽厚 세분의 묘소가 합천군 삼가면 霞鶴里에 모셔져있고 11世祖 諱 仁昊, 諱 玉蕃 두분의 산소를 중심으로 한 주변 각 지역에는 이 두분의 후손들의 여러 산소가 잘 보전되고 있으며 忠敬公의 유상을 모시고 매년 봄 유림에서 享祀하는 경남 유일의 盤溪影堂을 비롯하여 景賢堂, 永慕齋 (옛 霞山書院) 仁山齋, 學古齋, 東明齋터, 森泉齋 등 齋室과 冠雲亭 迎風亭터 등 명소가 이곳에 즐비하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 사는 경우가 많아 고향을 지키는 젊은이는 드물고 노인들도 아들, 손자따라 고향을 떠나 살기에 고향땅은 비어있다시피 되었지만 그래도 서부경남 이 지방에는 아직도 고향을 지키는 일가가 많은 편이다. 도회지로 나갔던 사람들도 고향과 맺은 끈질긴 정으로 뭉쳐진 인연 때문에 친·인척의 경조사때와 선조분들의 산소 성묘시 특히 반계영당의 봄 재향때와 각 소문중의 가

리움 만으로도 다시 고향을 찾게하는 동기로는 옛 살던집, 이끼낀 돌담, 마을앞 정자나무, 노닐던 실개천, 어릴적의 친구, 이웃 등이 있겠으나 늘 관심이 가고 깊은 정념이 서리는 곳으로는 아무래도 부모, 조부, 증조부로 이어지는 선조분들의 산소와 그 분들이 지어놓으신 재실과 정각 등 유물일 것이다.

고향을 찾으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나는 일년에 몇번이나 이곳 산소를 찾았던가 하는 자책과 요새같은 생활형태 속에서 우리 후손들은 이곳을 몇번이나 찾을까 하는 마음과 혹시 이곳이 기억속에서 잊혀버리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마음을 울적하게 했다. 다음으로 제작, 정자 등을 둘러보고 잘 가꾸어 보전되는 곳과 가꾸지않아 허물어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한 곳을 비교하면서 생각했다.

다른 나라에서나 우리 이웃에서는 조그마한 조상들의 옛 흔적들도 발굴하고 가꾸어 홍보까지 하여 전하면서 뜻있는

손들은 고립된 들판에 우연히 자생하는 잡초에 불가한 존재로 머물게 될 것이다.

가치는 추구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지식은 탐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듯이 우리 생활의 현실에서 무엇이 보다 더 중요하고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더 보람된 일인가를 다시 생각케하고 일깨워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적을 보전하고 가꾼다는 것에 대하여도 소시민적인 산술적 타산으로 미리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각 종친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국세를 걷어들이 강제로 징수하는 돈으로 이룩되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다. 또 현금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더 값어치 있는 성질의 사업도 또한 아니다. 몇 사람이 거금을 들여 번듯이 인공조형물을 구축한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정성으로 모여진 조그마한 흔적이 더 소중한 것이다. 마치 한사람이 천금을 들여 세운 탑보다는 백사람이 100금을 모아 이룩한 탑이 더 빛나는 이치와 같

사람에게는 가까운 접근할 수 없고 먼 곳에선 보이질 않기에 관독할 수가 없어 함께 간 젊은이에게 글자를 물으면 한자는 잘 모르겠다니 답답할 수 밖에 없다. 비록 60대 이상의 노년이라 해도 한문을 쉽게 해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니 답답하기야 같을 것이다. 해독할 수가 없으니 모르고 모르니 전할 수가 없고 늙은이 젊은이 다 모르니 가치를 알 수 없을 것이며 가치를 모르니 보전에도 관심이 없게되어 자주 찾지도 않을 것이다.

좀더 다른 면으로 생각하여 만일에 이 유적들이 화제나 홍수로 소실되거나 유실된다든지 현판 하나라도 도난을 당했을 때 이를 복원하려 해도 돈이 있을들 기록이 없으니 복원조차 못하게 되어 조상들의 귀중한 유산이 영구히 소멸될 것이라 생각하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현지에 사는 일가는 물론 잠시 들렀던 일가는 관심을 갖고 고향에 있는 유적들을 비어있는 폐가처럼 방치하지

— 편집후기 —

落葉이 쌓여가는 계절에 벌써 한 해를 되돌아 보게 하는 심정이 된다. 宗報 첫머리 會長人事가 만감이 서린 회고록 같지만 여겨지는 것은 가을이 주는 감상만이 아닐 것 같다.

이쯤에서 宗報도 면목을 일신하고 늙은이 젊은이 다 모를 거름을 내 디딜 때이다. 全宗人에게 조상님들의 빛나는 업적과 그 유래를 알게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슬기롭게 하는 후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반가운 일가분들의 소식을 전하려는 간절한 命題를 두고 일가 言路의 구심점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우선 뜻있는 분들의 많은 충고와 원고들도 받고 싶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고마운 성원이 있어 자주 宗報를 펴내고 싶다. 8號 발간을 위해 원고주신 분, 격려해 주신분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내용이나 마 두루 정독해 주셨으면 더한 보람이 없겠다.

(碧江)